

부르시더니 다짜고짜 절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제 짐까지 싸놓고 말이지요, 이유를 알 수 없어 제가 뭘 잘못했다고 몰랐죠. 스님께서는 제가 재복은 있는데 공직에 나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직생활 하다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사정 다 봐주다가 쇠고랑 찬다는 거예요. 듣고보니 맞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짐 싸서 나왔지요.”

그렇게 절에서 내려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그는 무작정 종로 거리를 걷게 된다. 그런데 마침 이전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학원원장을 만나게 된다. 학원원장은 학원감사 일을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이 없다고 제안을 하게 된다.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로 하던 학원감사를 직업 삼아했어요. 종잡반이 잘 됐는데 누군가가 단과로 바꿔 볼 것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딱 한 시간만 시간을 내 하게 됐어요. 그때 엄청나게 학생들이 모이면서 인기강사가 됐어요. 단과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당시 삼성 비서실에 근무하던 친구 월급이 1만 5천원이었고 교사 월급이 7~8천원이었는데 제가 월 170만원을 벌었어요. 이후 학원을 경영하게 되면서 큰돈을 벌었죠.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니 백악산 조실스님이 생각났어요. 한번 찾아뵙고 마음을 먹으니 이미 입적하셨더라고요. 늘 죄송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있던 그는 정계 쪽에서 제안이 올 때도 절대 돌아보지 않았다. “국회의원 등 정치가로서 제안이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나 이 마흔이 될 즈음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학원운영을 접고 동국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청정지역에만 살아 환경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미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박사과정을 밟고 1990년 동국대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전 세계 100여 국을 다니면서 거미 30만 마리를 채집했어요. 나중에 학위를 받고 나니 이걸 전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박물관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불자와 거미박사 사이에서

그는 동국대 교수를 역임하면서 불자로서 동물을 채집해 실험한다는 것에 대해 갈등을 겪기도 했다. “박사과정 시절, 마곡사에 가서 방 하나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지 스님께서 살생하는 사람 쓸 방은 없다고 가라고 호통을 치셨죠. 제가 ‘인간을 위해 거미 연구를 한다’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 한 스님께서 나서서 이를 중재해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동국대 재단이사장 진경 스님이셨어요. 스님의 도움으로 마곡사에서 머물 수 있었죠.”

김 관장은 거미가 환경지표이며 이를 통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데에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미래에는 생물유전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콩, 벼, 보리 등 오리지널 표본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엄청난 재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 거미는 대부분 수명이 1년인데 죽기 전에 보관하는 것이 먼 미래를 보는 살생이 아니라 기초과학을 다지는 일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살생이라는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죠.”

89년 진경 스님과 독일에 간 일은 그가 불교의 위대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정계 학계 저명인사 대담을 했어요.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불교는 심오한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종교와 학문으로서 모두 다 손색없이 훌륭하다고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후 불교 관련 서적을 읽어 나갔고 동국대에서 진행되던 불교학개론 수업을 찾아 듣기도 했다. “당시 권은주 교수가 불교학 개론 강의를 했는데 무척 쉽게 풀어써서 가르쳐주었어요. 그런데 교수인 제가 자신의 강의 시간에 들어오니 부담스러워 했어요. 그분이 곧 나를 책이라며 미리



김주필 교수는 ... 1943년 황해도 연백군에서 출생했다. 1967년 서울대 동물학과를 졸업했고 거미 연구로 1984년 동국대 이과대에서 생물학과 박사학위를 받고 1990년부터 동국대 교수로 재직했다. 2004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 거미박물관을 건립 2009년도에 박물관과 부속건물, 도서관 등 200억 상당의 유산을 동국대에 기부했다. 저서로는 <거미생물학> <거미박사 김주필> <유용거미류> 등이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hillo@hyunbul.com

가본 자료를 건네며 공부하라고 권했죠. 그 책이 정말 불교를 쉽게 풀어 설명해서 일목요연하게 불교를 알 수 있었죠.” 이처럼 그는 불교를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었고 삶을 내려놓는 지혜도 얻을 수 있었다.

김 관장은 박물관을 다녔던 학생들이 순수기초과학의 꿈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생물, 물리, 천문학을 아우르는 종합학습장으로 박물관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김 교수의 꿈이다. “박물관 인근이 동국대 학

술림 부지가 박물관과 연계해 다양한 용도로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물관이 앞으로 기초과학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자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시설을 더욱 보완한다면 서울 인근의 학생들이 찾아와 관람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초과학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주필거미박물관이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전법일기

총 겨는 베트남에게 설법하다

군승으로 임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월남전에 참전한 나는 직접 총을 쏘 일은 없었지만 전투부대에서 병사들과 동거동락을 함께 했다.

틈나는 대로 각 부대를 찾아다니며 전투로 지친 장병들에게 설법을 하기도 했고, 불가피한 살생이 아니면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워낙 전투가 치열했기에 불법을 전하는 시간보다 죽거나 다친 장병들을 천도하는 일들이 많았다.

그러던 중 월남에서 한 스님을 따라 월남 한 사찰을 방문했다. 그러던 중 사단이 발생했다.

느닷없이 군복임은 사나이가 나를 향해 총을 내밀었다. 베트남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비록 스님 신분이었지만 전투

이 바라는 세상이 찾아올 수 있다면 마땅히 죽어주겠네.”

그러자 그들은 총구를 내렸다. 그들의 불심은 한국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다. 월남은 인근 태국이나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처럼 불교신앙이 생활화돼있는 나라다. 그래서 사찰이나 승려만은 결코 건드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불문율이었다.

베트남들은 그 무서운 표정을 거두고 암전해지더니 내게 합장을 하고는 물러갔다. 월남 스님과 나는 차를 마저 마시고 나 누던 법담을 계속 할 수 있었다. 포성이 진동하는 월남에서 이런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국내에서도 이런일은 있었다. 그 무렵 삼청교육대라는 게 있었는데 군승들이 이 부대 입소자들에게 인격, 정신수화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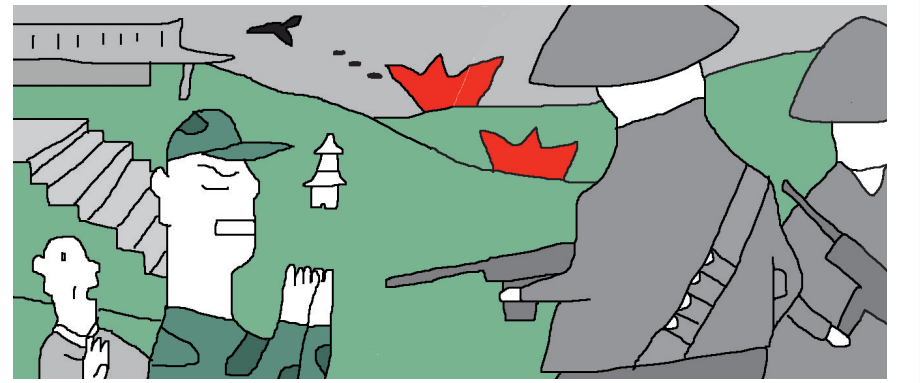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육 차림이었기 때문이다. 누가봐도 나는 그들의 적이었다. 더구나 걸음로 봐서는 장교 차림이었다.

베트남들이 들이닥치자 순간 아득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군생활 내도록 한시도 잊은적 없는 부처님의 제자라는 생각이 용기를 내게 했다.

월남 스님이 나섰다. 이분은 군인이 아니라 스님이라고 소개하며 그들을 가로막았다. 월남에서 스님의 사회적 지위는 베트남이든 월남군이든 절대적이었다.

그래도 베트남들은 날 죽이겠다고 총구를 들이댔다. 하는 수 없이 월남 스님에게 통역을 부탁하고 내가 직접 나섰다. 생사의 순간이었다.

“이웃 때문에 날 죽이려는가? 이웃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를 죽이려 한단 말인가? 난 살육이 그치지 않는 월남 땅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한국의 스님이다. 군인들을 따라 월남에 왔지만 난 여기 계신 스님과 똑같은 수행자다. 보디시피 총도 갖고 있지 않았는가? 부처님의 제자까지 죽여가며 당신들은 대체 무엇을 얻으려는가? 수행자까지 죽여야만 얻어지는 좋은 세상이 있다면 어디 한번 죽여보시게. 내가 죽어 당신들

을 막았다. 문제는 어느날 도로작업에 동원된 교육생 두명이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 담배를 달라고 외쳤는데, 승객 중 누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담배갑을 던져 주면서 발생했다. 담배를 피워 물자 군에서는 규정위반을 엄격히 대응했으며 육신감시하는 과정에 이 교육생이 기간병이 가진 총을 빼어 들고 막사에서 대치한 것이다. 한밤 중 호호를 웃웃을 베풀려서 초 차림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일시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필경 실패자가 되고 만다. 모두 털어버릴 것은 털고 당당히 벌을 받자”는 말에 총은 모두 수거됐다.

베트남의 총구 앞에서, 분노에 찬 삼청교육대 교육생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처님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법 앞에서는 베트남이나, 나나, 월남 스님이나, 모두 공영 중생이었다. 우리는 서로 죽고 죽는 전쟁터의 아군과 적군이 아닌 동체대비의 한 몸이 될 수 있었다.



자람 스님 (前 군중교구장·용인 반이선원 주지)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에서 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영산불교는 왜곡되고 왜소화된 세계불교를 바로잡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갑니다.



■ 세계 어느 불교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불법의 정수를 영산불교대학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 ▷ 부처님께서는 시공과 유무를 초월한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십니다.
- ▷ 왜곡된 무아론을 바로잡고, 영혼체가 인간의 본체이며 윤회와 해탈의 주체임을 주장합니다.
- ▷ 사후에 가는 지옥 등의 육도윤회세계와 극락 등의 해탈세계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 ▷ 인간과 우주탄생의 깊은 비밀을 인류사상 최초로 밝히고 있습니다.
- ▷ 청명염불은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정통성 있는 수행법입니다.

■ 영산불교대학에서는 다양한 과목과 체계적 교과과정, 우수한 강사진을 통해 깊고 방대한 부처님 법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수준 높은 불자 양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 입학의 통해 교학과 신심, 그리고 수행으로 이어지는 불자들의 신행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입학처 및 연락처

대전분원 : 042)525-5325, 042)525-5345

춘천분사 : 033)243-1787
고성분원 : 033)681-5515

제주도 제2본사 : 064)783-5355
서울분원 : 02)453-5953

부산분원 : 051)554-5150
대구분원 : 053)654-5557

2014년도 영산불교대학 5기 수강생 모집 안내

- 모집인원 : 1·2·3·4학년 각반 150명 선착순 모집
- 입학자격 : 제한없음. 처음 입학하시는 분은 1학년만 입학가능.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순서로 매년 승반
- 수업일정 : 2014년 5월 24일 ~ 2014년 11월 30일 월 2회 - 격주 토요일 (4시간 강의)
- 입학일시 : 2014년 5월 24일 10시
- 교육장소 : 현지사 대전분원 -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1392
- 교육과목

1학년	부처님의 생애, 신불교사상, 청명염불수행법, 금강경사경, 불교예절, 찬불가, 특강
2학년	지장경, 천수경, 반야사상, 정토학, 신불교학개론, 찬불가, 특강
3학년	법화경, 아함경, 열반경, 금강경, 세계종교비교 I, 특강
4학년	보현사상, 문수사상, 신불교학과 철학, 세계종교비교 II, 특강